



일과 여성

신혜선/코리아헤럴드 사회부 기자

일 마 전 한 연구기관이 전국의 남녀 중학생 천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직업의식'을 조사한 적이 있었다.

그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학생들은 구체적이고 다양한 직업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들은 자신들의 미래 직업계획에 대해 다소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조사대상 여학생의 85%정도가 여성도 평생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해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해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가사나 육아와 관계없이 평생직업을 갖겠느냐는 질문에는 40.1%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는 21세기 한국사회의 주역이 될 절반의 '주인공'들이 아직도 자신의 직업활동과 관련해서는 가사와 육아활동을 여성의 주된 역할로 여기는 '보수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다소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의 직장에 들어오기 전까지 한 2년간 나는 '백수' 생활을 한 적이 있었다. 당시 대부분의 남성 대졸자들은 성적이 별로 좋지 않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 입사시험에 비교적 쉽게 합격하곤 하였으나 여학생들은 거의 모두 심각한 구직난을 겪어야 했다.

좀더 전문적인 직업을 원하던 나는 대학원 진학 준비를 한다는 핑계로 가족들로부터의 구박도 면하고 남들로부터의 동정어린 눈길도 피해가며 근 2년을 집에서 빈둥거릴 수 있었으나, 마음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약간의 불면증 증세까지 있었던 나는 가끔 어슴푸레한 새벽녘에 잠이 깨곤 했는데 그럴 때면 늘 창가로 가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구경하곤 하였다.

그때 내가 가장 부러워했던 사람들은 바로 양복에 넥타이를 매거나 정장에 하이힐을 신고 총총걸음으로 바쁘게 일터로 향하는 젊은이들이었다.

그후 나는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현재의 직장에 입사하였고 10년째 근무하고 있다.

일하는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영화나 소설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또 내가 전에 상상했던 것처럼 결코 화려하지도, 신나지도 만만치도 않다.

그러나 나는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피곤함 속에서도 가끔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뿌듯함과 할 일이 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

나는 결코 전업주부들의 역할이 하찮은 것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아직 어린 후배들에게, 그리고 딸들을 가진 어머니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현모양처가 되겠다는 꿈은 남성들이 좋은 아빠나 남편이 되겠다고 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기본적인 당연한 것이지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며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 또한 이제는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선거철이면 정치가들은 여성지위향상과 고용확대를 약속하고 시민단체들은 여성차별철폐를 부르짖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은 남성들이 주도하고 여성들은 상대적 약자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세기는 양성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데는 여성들의 보다 적극적인 직업의식과 여성문제를 '드센 여자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보기 보다는 '내 아내, 내 딸의 문제'로 바라보려는 남성들의 의식변화도 절실하다고 본다.

또한 딸을 '예쁜 화초'가 아닌 한 '인간'으로 키우려는 어머니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본다.